



연중 제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지롤라모 투로파, 〈성 베네딕토와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있는 로사리오의 성모〉, 1692
마리아 델 포폴로성당, 치타두칼레, 이탈리아



강론

겨울이라는 중간역에서

함양에 다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역에 잠시 내렸습니다.

날씨만 그런게 아니라 마음도 겨울에 동화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겨울처럼 나를 비춥니다.

이제 50대 초반의 나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졌습니다.

지속되는 신자들의 식사 권유를 거부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만 싶어집니다. 우전을 하면서 욕이 나오고 때로는 중앙분리대를 받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겠거니 여기면서 몇 달을 지내왔지만 상황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내 모습에 결국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작지만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와 일상의 변화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이 겹친 상황이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제들과 신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나면 불쌍하게 볼까 봐... 때로는 괜찮냐는 전화에 시달릴까 봐 쓸데없는 걱정과 자존심 세우면서 혼자 이겨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문제도 아니야... 누구나 겪는 과정이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경제 문제나 신앙 문제로 다른 이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 하고 속앓이하거나 읊처럼 착하게 잘 살았는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온통 하얗고 차가운 겨울이라는 중간역에서 저를 봅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같이 힘들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어느 역에서 그분을 뵈지 알 수 없기에 제 할 일을 하면서 다시 기차에 올라타입니다.

그분이 마련해 두신 것이 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을 따듯이 녹여 줄 차와 음료수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의 한복판을 뚫고 나아갑니다.

기차에 오르셨죠? 이 기차는 봄을 향해 가는 특급열차입니다.



신호열 요셉 신부 | 함양본당 주임



제 1 독 서 욕기 7:1-4,6-7

화 답 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 2 독 서 1코린 9:16-19,22-23

복 음 마르 1:29-39

주일 진레

성인聖人이 되는 첫 단계

한자漢字로 한 방면에서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 성스러운 '성聖'자를 쓴다.

그래서 음악에서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악성樂聖이라 하고, 바둑이나 장기에서 최고의 고수를 기성棋聖이라 하며, 비길 데 없이 위대한 시인을 시성詩聖이라 한다.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지혜와 덕이 출중해 만인이 길이길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는 늘 성스러운 성聖이 있다.

성聖은 귀와 입, 그리고 임금을 뜻하는 세 글자의 뜻이 함축된 말이다. 그 뜻은 '성聖'자를 쓰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귀 '이耳'를 쓰고, 다음에 입 '구口'를 쓰며, 마지막에 임금 '왕王'을 쓴다.

이耳 자를 먼저 쓰는 이유는 남의 마음을 얻고 알기 위해 귀로 듣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로 잘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하기에 구口 자를 나중에 쓰게 한 것이며, 마지막에 왕王 자를 쓰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나중에 말을 하는 것이 임금이 되는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다. 얼굴에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귀 아래 하나만 있는 것도 남의 말을 양쪽으로 잘 들으라는 것이며, 또 말은 듣는 것보다 적게 하라는 뜻이다.

공자는 60이 되어서야 이순耳順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순에 도달함은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그 깨달음은 남의 어떤 말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를 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포용하는 경지이다. 그리하여 공자는 70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법도를 넘는 일이 없는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은 2년이면 족하나, 경청敬聽을 배우는 것은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것 같다. 우리가 살면서 경청할 것은 많다. 남의 말도, 진리의 깨우침도 역사의 교훈도 잘 들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변에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펴보자. 그런 사람들은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말에 실수가 있어 말한 것에 대한 책임도 못 진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들은 신부들에게 성인 신부가 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솔직히 신부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담이 많이 된다. 신부만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자들도, 신자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 자기를 수련하여 덕도 쌓아야 하고, 많이 베풀면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 먼저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인聖人이 되는 첫 단계인 것 같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뒷전이고,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는 안 되겠다.

은총과 구원의 때인 사순 시기가 곧 다가온다.

을 사순 시기에는 이런 '성聖'자의 의미를 따라, 잘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백신 접종: 연대와 형제애의 실천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프란치스코 교종은 반복해서 가난한 병자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교종은 과학자들에게는 이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제적인 대응에 협조하기 위해, 교종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바티칸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과 협력관계인 이 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하는 명확하고도 대담한 윤리적 균형에 관한 문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문헌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백신. 20점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입니다.

백신이 낙태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치료 행위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야 한다는 ‘백신 접종 거부자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바티칸의 입장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티칸은 이러한 일방적인 추측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백신 접종이 윤리적 결핍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교종은 지난 1월 9일 이탈리아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비판론’을 비판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비록 ‘모두를 위한 백신’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에 반대되는 어떠한 ‘예언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연구에 따르지 않고, 무모하고도 정화되지 않은 종말론적 추측일 뿐입니다.

일곱 쪽의 바티칸 문헌은 장기 대책을 고려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문제도 제안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지역색을 살린 전 지구적인 치유”**입니다. ‘지금 여기서’ 즉각적인 조치뿐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재생의 ‘치유’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든 공통적이든 **함께** 협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교종 프란치스코의 그 유명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장려는 강압적이지 않으며, 매우 이유 있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데이터를 진지하게 봐야 할 개인적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공공 건강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 접종은 모든 이가 이 사실을 선택해야 하는 진정한 윤리적 의무입니다.

바티칸 문헌은 교회의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교회는 그 스스로 동반자로서, 참여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지역 교회들과 연대하고, 전 지구적 조직과 협력하며, 다양한 평가에 참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봉사”**와 **“공통의 집을 보살핌”**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몽상이 아닙니다. 분석과 제안들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실험실이 상업적인 것은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은 생산과 분배가 확실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는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적 질병의 대유행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정의, 연대, 보조성, 형제애의 실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예외 없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공동선의 문제입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매일 13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비영리기구인 <오픈 도어즈 Open Doors>에서는 매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50여 개국을 제시하는 ‘세계 감시 목록’을 발간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일 신앙 때문에 13명의 그리스도인이 살해당하고 있으며, 매일 12개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시설물들이 공격받았으며, 12명의 그리스도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감금되었으며, 5명은 유괴되었습니다.

이 ‘세계 감시 목록’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이러한 박해와 억압으로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구의 수장인 데이비드 커리는 “고통받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묵 중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들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명 중 1명이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교롭게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종교 탄압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에서 더 많은 공격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사회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주술적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상위 10개국은 전년과 바뀌지 않았지만,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대체로 박해 당사국들은 종교 자유와 관련한 추방, 차별, 성폭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민족의 힌두 근본주의(카스트 제도)에 기인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 유스티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문당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 그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 주고 우리가 구세주이신 주님의 준엄하고 공정한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구장 본당사목방문

일시: 2월 9일(화)

본당: 양덕동/ 구암동

일시: 2월 10일(수)

본당: 산호동/ 석전동/ 호계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2월 9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신학교 연구 1년 영신수련 8일 피정

일시: 2월 14일(주일)

장소: 순천 예수회 영성센터

2021년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28일(주일) 10:0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각 본당 복음화분과위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참가비: 2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FAX- 055·249·7024)

계좌번호: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입금 시 '본당+복음화

분과로 기입(예:양덕복음화분과)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상반기 소공동체장 교육

일시: 3월 2일(화) 10:00~15:30

장소: 상남동성당

대상: 신입 소공동체장

준비물: 필기도구

참가비: 1만 원

신청: 2월 19일(금)까지 (FAX- 055·249·7024)

계좌번호: KEB하나 160-890012-14304

(재)마산교구-입금 시 '본당+신입'로

기입(예:양덕신임)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수도회

성공로만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2월 14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2월 20일~23일/2월 27일~3월 1일

제주순례피정: 3월 5일~7일/3월 15일~18일(추)

문의: 02·773·1463, 064·756·6009

기타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6일(월)~2월 10일(수)까지

(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 오픈 기념: 얼리버드 할인 혜택 기간

1월 15일(금)~2월 14일(주일)

클래스 개강일: 2월 15일(월)

김혜윤 수녀(성경 본문 중언Zoom in 구제사 편 1)/

김영선 수녀(늘푸른성경여정 구역 입문+창세기)/

박기석 신부(늘푸른성경여정 신약 예수그리스도 입문)/

김효준 신부(바ible 가이드:성경 입문 가이드)/

박형순 신부(지혜 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문의: 010·3092·1108, www.catholicon.co.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전국 교구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기간: 2월 21일(주일)~4월 1일(목), 40일간

시상: 전체 1~3위, 교구별 1위, 특별상

▶모바일앱 [가톨릭]에서 참여

※ 자세한 내용 www.clak.or.kr 참조

로템의집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상담원 3명, 사무원 1명

접수: 2월 15일(월)까지,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rothem03@hanmail.net)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템의집 블로그(blog.naver.com/rothem0303), 교구 홈페이지 채용정보 참조

반송본당 제2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안경립(에드워드)

사목협의회부회장(제1남성): 송일선(야고보)

사목협의회부회장(제2남성): 정봉길(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천말숙(안젤라)

총무분과위원장: 민현규(미카엘)

재무분과위원장: 이종복(다니엘)

복음화분과위원장: 김미선(글라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해정(임마누엘)

전례분과위원장: 남미리(아타나시아)

지역분과위원장: 표효순(바실리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이상훈(요셉)

홍보미디어분과위원장: 김성원(발렌티노)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최성훈(베드로)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 제주 성지 순환버스
2월 15일(월)부터 2명 이상 매일 출발
제주성지 6곳 39,000원/ 추가도 59,000원

■ 한국 성지 167완주
3. 22.(월)~3. 25.(목) 수원·청주교구 4일
5. 10.(월)~5. 13.(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별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일 립

2021-1학기 교구 『여정』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구암동	3월 8일(월) 2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호 계	3월 2일(화) 10:00	요한 복음서
월 영	3월 2일(화) 10:0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3월 3일(수) 19:30	마태오 복음서
교 구	3월 2일(화) 10:00	마태오 복음서
양덕동	3월 2일(화) 10:0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3월 8일(월) 19:30	역사서 2
삼 계	3월 2일(화) 10:00	예언서
	3월 2일(화) 10:00	은빛(창세기)
	3월 5일(금) 20:00	시서와 지혜서
월남동	3월 2일(화)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월 4일(목) 20:00	역사서 2
창 념	3월 3일(수)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완월동	3월 2일(화) 20:00	요한 복음서
	3월 4일(목) 10:30	요한 복음서
산호동	3월 4일(목) 20:15	마태오 복음서
함 안	3월 5일(금) 10:40	마르코 복음서
의 령	3월 3일(수) 10:30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상남동	3월 3일(수) 14:00	은빛(지혜여정 5)
칠 원	3월 5일(금) 10:00	은빛(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창원지구		
양 곡	3월 5일(금) 10:4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반 송	3월 2일(화) 10:40	역사서 2

창원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반 송	3월 3일(수) 10:40	요한 복음서
용 잠	3월 4일(목) 20:1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대방동	3월 2일(화) 10:4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사림동	3월 4일(목) 20:10	역사서 1
	3월 2일(화) 10:00	역사서 2
덕산동	3월 4일(목) 10:30	은빛(지혜여정 1)
	3월 8일(월) 19:30	요한 복음서
	3월 5일(금) 10:40	마태오 복음서
사파동	3월 8일(월) 20:00	바오로 서간
가음동	3월 5일(목) 10:00	요한 복음서
명서동	3월 4일(목) 12:40	은빛(지혜여정 3)
	3월 8일(월) 19:30	역사서 2
여좌동	3월 2일(화) 10:00	은빛(요기과 코헬렛)
진주지구		
가좌동	3월 3일(수) 19:30	바오로 서간
하대동	3월 4일(목) 10:00	요한 복음서
산 청	3월 3일(수) 10:30	은빛(지혜여정 3)
	3월 5일(금) 19:30	바오로 서간
상평동	3월 4일(목) 20:00	바오로 서간
함 양	3월 3일(수) 19:3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금 산	3월 2일(화) 10:00	요한 복음서
신안동	3월 3일(수) 20:10	오경 1
옥봉동	3월 3일(수) 19:30	마르코 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문 산	3월 8일(월) 19:30	마태오 복음서
칠암동	3월 2일(화) 10:00	마태오 복음서
사 천	3월 5일(금) 10:30	요한 복음서
	3월 5일(금) 19:30	요한 복음서
봉곡동	3월 2일(화) 10:00	은빛(지혜여정 5)
	3월 3일(수) 19: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거제지구·복지시설		
장 평	3월 5일(금) 10:30	역사서 1
대 건	3월 4일(목) 10:00	은빛(탈출기)
	3월 5일(금)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월 5일(금) 11:10	요한 복음서
북신동	3월 4일(목)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3월 5일(금) 10:00	은빛(지혜여정 1)
지세포	3월 3일(수) 19:30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태평동	3월 5일(금) 19:30	오경 2
장승포	3월 3일(수) 19:30	역사서 2
마산교도소	3월 3일(수) 13:30	마르코 복음서
작은예수회	3월 4일(목) 10:00	은빛(탈출기)

●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교구 소식

나자렛예수수녀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미사



나자렛예수수녀회 공동체가 1월 31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는 설립자인 박정일 미카엘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수녀회 공동체는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함께한 사제, 수도자, 박범숙(로사) 할머니와 은인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사를 전하였다. 더불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온 30년처럼 앞으로도 그 첫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전하였다.

신입·복학 신학생 피정



교구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신입·복학 신학생들을 위한 피정을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피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학교 신입생과 모라토리움을 마치고 복학하는 신학생들을 위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피정에는 1월에 서품 받은 2명의 부제가 함께하였으며, 신학생으로서의 삶과 부르심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였다.

‘거울 뇌’와 ‘데레사 효과’ 그리고 예수살이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거울 뇌’와 ‘데레사 효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발행한 계간지(2020. 겨울)에 한 과학 저널리스트가 이에 관해 쓴 글이 있어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거울 뇌’는 따라 하기와 흉내 내기의 천재인 원숭이를 연구하는 이탈리아 과학자들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우리 뇌에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거울이 있는데,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가 뇌 안의 거울과 만나게 되면 뇌는 그 행동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답니다. 거울의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서 똑같이 비추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거나 예의범절을 배우는 것, 소설이나 영화를 보며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등이 이 ‘거울 뇌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효과’는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 안의 면역물질의 양을 측정한 후, 인도의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준 다음 침 안의 면역물질의 양을 측정했는데, 그전의 양보다 5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 현상을 하버드대 과학자들이 ‘데레사 효과’라고 이름 지은 것인데,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뇌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착한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위를 한 것처럼 받아들여 부딪힘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덩달아 면역력까지 향상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착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사람의 정신적인 것은 물론 신체의 면역체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직접 착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렇다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돌아가신 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며 이것이 곧바로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되는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난하신 예수님을 닮아 가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자 가난, 순명, 정결, 정주, 수도승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서원을 한 모든 축성 생활자들의 삶은 이 ‘거울 뇌’와 ‘데레사 효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주님,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루카 2,30)라고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한 시메온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는지요!!!